

# 수은·미세먼지 장기 노출 영유아 체중 5% 적고 인지력 떨어진다



**미세먼지 초과 노출 유아 평균 체중보다 1kg 가벼워 캔·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영유아가 수은, 비스페놀-A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체중과 신경인지 발달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영유아의 경우 같은 연령대 영유아보다 평균 체중이 5% 적고 인지능이 다소 떨어졌다는 것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천안·아산, 울산 등 4곳에서 모집한 산모와 영유아 723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시기(0~3세)에 노출된 유해인자가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임신 기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국내 미세먼지(PM10) 연평균 기준(50 $\mu\text{g}/\text{m}^3$ )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영유아의 체중은 평균 기준 미만 환경의 영유아보다 약 5% 체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그램( $\mu\text{g}$ )은 100만분의 1그램이다. 두 집단의 체중 차이는 12개월에 360g, 36개월에 720g, 60개월에 1114g이었다. 전체

영유아의 몸무게 평균은 12개월 10.1kg, 36개월 14.5kg, 60개월 19.1kg이다. 비스페놀-A과 수은 노출의 경우 영유아의 인지능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말기 산모의 비스페놀-A 수치가 1 $\mu\text{g}/\text{L}$  증가하면 생후 36개월까지 영유아의 평균 동작점수는 1.3점 낮아졌다. 이 연령대의 평균 점수는 94.5점이다. 비스페놀-A는 캔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에 많이 들어있다. 수은이 1 $\mu\text{g}/\text{L}$  증가할 때 생후 60개월 아동의 인지점수는 0.91점 낮았다. 이 연령대 평균 점수는 104.4점이다.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과장은 “이번 연구는 현재의 환경오염물질 노출 수준에서도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노출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주기적인 청소와 조리시 환기를 권장했다. 유아용품 사용할 때에는 비스페놀-A 무검출 등 친환경 상품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환경보건가이드’를 어린이 환경과 건강 포털(www.chemistory.go.kr)과 환경보건포털(www.envhealth.go.kr)을 통해 제공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임신말기 오염물질 영유아 인지능력 영향**

비스페놀-A 1 $\mu\text{g}/\text{L}$  증가 → 동작점수 1.3점 하락

수은 1 $\mu\text{g}/\text{L}$  증가 → 인지점수 0.91점 하락

**■ 미세먼지가 영유아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

연간 미세먼지 50 $\mu\text{g}/\text{m}^3$  이상

12개월 360g, 36개월 720g, 60개월 1114g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개한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에 선정된 월출산국립공원의 모습. 공단은 역새발 사이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이달 말부터가 탐방 적기라고 소개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걷기 좋은 국립공원 산책길’ 어딜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바람재·월출산 역새발 등 25곳 선정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며 걷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25곳을 선정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걷기 좋은 단풍길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로 무등산국립공원 원효분소~바람재~원효분소 구간(6.8km)을 포함 총 25곳이다. 공단이 추천한 국립공원 산책길은 등산보다는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무등산 산책길의 탐방 적기는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 것으로 보이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왕복 2시간 30분 정도 코스다. 이 시기 무등산은 곱게 물든 단풍과 함께 바람 타고 출렁이는 역새발의 장관도 탐방객에게 선사한다.

월출산국립공원의 경우 도갑탐방지원센터~역새발(2.7km) 구간 1시간20분 짜리 도보 코스로, 탐방 적기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은 직전마을~삼흥소~피아골대피소(4km·2시간), 뱀사골탐방지원센터~요룡대~뱀사골탐방지원센터(4km·2시간) 구간으로, 탐방 적기는 각각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5일과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다. 이 시기 지리산 단풍은 강렬한 붉은 색을 특징으로, 전국에서 수많은 탐방객이 몰려든다.

내장산은 내장탐방지원센터~내장사(3km·1시간30분)와 탐방안내소~원적암~벽련암(3.8km·2시간) 코스를 추천했다. 광주·전남권 외에도 공단은 가야산, 계룡산, 설악산, 오대산, 주왕산, 북한산 등 전국의 명산이자 국립공원 산책길을 소개했다. 국립공원의 걷기 좋은 단풍길 25곳은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일조량이 많고 다음달 초까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져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단풍은 이달 초 설악산에서 시작해 중순께 소백산과 월악산을 거쳐 내달 초에 내장산, 지리산, 무등산 등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단풍 절정은 설악산 등 중부는 18일께, 내장산, 무등산 등 남부는 11월 첫째 주 정도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가족과 친환경 고구마 함께 캐요”

23일 남구 양과동 생태체험장

“광주 대촌 들녘에서 고구마도 캐고 힐링의 시간 보내세요.”

광주시 남구는 오는 23일 양과동 생태체험장에 가꾼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를 연다.

남구는 올 봄부터 양과동 생태체험장에 1320 $\text{m}^2$ (400평) 규모의 고구마가 밭을 일궈왔으며, 이날 사전에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구마를 캐는 체험 행사를 갖는다. 참가자에게는 현장에서 호미와 장갑, 상자 등이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직접 캔 고구마를 1상자(5kg)당 8000원에 살 수 있다. 가족 단위 또는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일반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00명 선 착순이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이며 당



지난해 열린 고구마 캐기 체험행사.

일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대촌 청정 들녘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된 고구마도 마음껏 캐고, 가을 날 대촌 들녘의 풍요로운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학생들에게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고구마 캐기 행사를 열고 있다. 문의는 남구 문화관광과(607-2321).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펜션·박물관·미술관·식당·찻집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구, 송학랜드)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정가 - 30억
- 법인체 인수가(이전비 없음)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매매 - 22억**

**동업 - 협의**

**임대 - 협의**

**투자 - 협의**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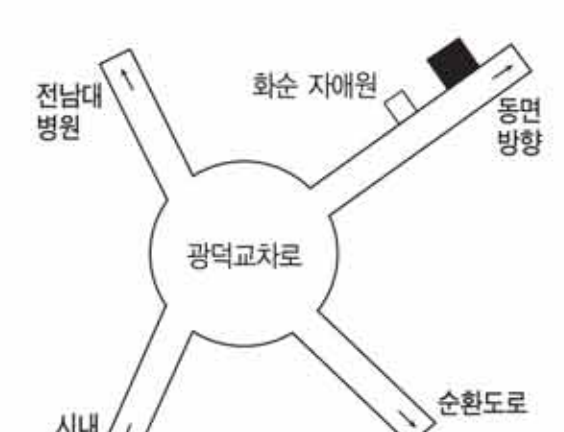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010-3605-5000

## 경매투자자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 전원주택부지



주인직매 H.010-3605-5000

▶ 특수비법 배우실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배우면서 투자 가능

▶ 투자 하실분!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수익률 - 연 10% 보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